

5703

◇ 원 저 ◇

## 기초의학 학습목표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백 상 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박 찬 응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조 만 희

가톨릭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채 규 태

=Abstract=

### Perceptions of Teachers to the Specific Behavioral Objectives in Basic Medical Sciences and its Implementation in Teaching Situation

Sang-Ho Baik, Chan-Woong Park<sup>1</sup>, Man-Hee Cho<sup>2</sup> and Gue-Tae Chae<sup>3</sup>

*Department of Anatomy, <sup>1</sup>Department of Pharmacology, Colla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Biochemistry,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Pathology,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of teachers to the learning objectives(specific behavioral objectives, SBO) of their own specialty subjects at real educational situation and also to examine how and when teachers use the SBO. A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through a series of discussion at the task force meetings. Opinions from the members were gathered and a list of 21 items of question was generated and finally rephrased each question item to make 20 closed-type and 1 open-type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all the faculties who have been engaged in teaching a subject of basic medical sciences.

Although the response rate of the questionnaire was 43%, fairly even distribution of rank proportion of responded faculties were analyzed that could give strong convince of acceptable level of the results.

The analysis showed that most of the faculties have fairly high perceptions to the necessity of SBO in teaching situations, while only 25% of them administered the SBO to their students. About 33% of the responded faculties construct

SBO individually, and 25% have joined to a group work in their own department. A booklet, "Specific Behavioral objectives in Basic Medical Sciences", has been well known and 85% of them used the booklet as a reference to make their own SBO. 65% of the faculties keep the booklets and the remaining groups answered that they don't have it although some of them have been seen it before.

*Key word: Basic medical science  
specific behavioral objectives*

우리나라 현대 의학교육의 시작을 광복되던 해로 잡는다고 해도 그 역사가 이제는 반세기에 가까워가고 있다. 그 중 전반 25년을 혼란기였다고 본다면 후반 25년은 비교적 안정 속에 발전한 시기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 실제로 이 사이에 우리 의학교육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와 전반 25년에 비하면 큰 발전이 있었음을 누구든 부인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 질적 발전의 하나로 많은 대학이 스스로 단행한 교육과정(curriculum)의 개편을 들 수 있다. 교육과정 속에는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하여 배울 내용을 선정해서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마지막으로 선생이 원하는 바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절차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계획이 들어 있어야 하고(Guilbert, 1981), 대학과 교수는 이 계획표에 의거해서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대학의 교육과정 내용이 실제로는 매우 방대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개는 교육과정의 어느 한 부분을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의과대학이 새로 설립되는 것을 계기로 대학의 안팎에서는 의학교육에 관한 크고 작은 많은 모임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교육에서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은 목표를 세우는 일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서서히 변화가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의사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각각 달랐고 이에 따라 각 대학에서 가르치는 범위와 수준은 교실 나름으로, 심지어는 교수 개인 나름으로 판단하여 시행해 왔기 때문에 과목마다, 대학마다

모두가 다를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현상의 한 결과로 기초의학의 어느 과목 강의시간수를 볼 때 A 대학에서는 45시간으로 편성해 놓고 있는가 하면 B 대학에서는 그 세배가 되는 145시간을 편성해 놓고 있고(이원복 등, 1990), 한편 임상의학의 어느 과목 강의시간 수의 경우 A 대학에서는 33시간인 데 비하여 B 대학에서는 10배에 가까운 304시간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1990)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현실을 나타내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격차가 생긴 원인은 첫째, 의사가 되는데 필요한 그 과목 부분의 최소 기준으로서의 학습목표가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교육과정 작성에 원칙이나 합리성 보다는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영향을 더 많이 미쳤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연구의 필요성

교육계획 가운데서도 학습목표는 가장 기본이 되며 그것에 근거를 두고 나머지 교육계획 즉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또는 평가방법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라는 생각이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도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각 대학 나름의 불균형을 최소한도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어 1987년에는 기초의학 분야의 각 학회가 학회별로 학습목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교과목의 학습목표를 다듬는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대한의학협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일차로 8개 기초의학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였고 1990년에는 이차로 임상의학 교과목에 대한 학습목표 작성을 끝냈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해당 분야 교수들의 의견을 모은 첫 시도였으며, 각 학회별로 회원인 각 대학의 견해를 반영시